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말씀 / 요한복음 9:1-41

요절 / 요한복음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다.

† 운명(운명주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1. 예수께서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1)? 그의 인간조건이 어떠합니까(1,8)?

☞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 그의 인간조건은 소경이요 거지입니다.

첫째, 그는 소경입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몸이 백 냥이면 눈이 구십 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는 정보의 90%는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6:22,23). 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때부터 소경이었기에 자기를 낳아준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주스러운 운명과 슬픈 인생을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거지입니다.

소경이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구걸하는 생활까지 해야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학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었으며 장가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량한 노래나 부르며 남에게 부담만 주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거적대기 위에 앉아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2)?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

? 그 부모의 죄입니까?”라고 물어보았다.

불행의 원인에 대한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은 인간의 불행이나 질병,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원인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구약 곳곳에 나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출20:5 ...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대하21:15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시79:8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107:17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잠26: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인간의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다. 질병에도 죄로 인한 질병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첫째, 죄로 인한 징계로서의 질병

레26:15-17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신28:58,61 - 율법책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질병과 재앙을 내리신다.

요5:14 -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둘째, 특별한 죄가 없는 경우의 질병

히12:5-13 -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징계한다.

욥23:10 -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신다.

고후12:7 -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 제자들도 유대 전통사고 방식,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다. 소경거지에 대한 동정과 운명적인 생각으로 슬픔에 빠져들었다.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쌍한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슬펐다.

3. 예수님은 그의 소경된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3)? 여기서 인간의 불행, 비극, 악조건 등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NIV))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편에서 소경거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고 하심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하나님의 영광)가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조건이나 환경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미와 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데서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그가 어떤 인간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있습니다.

고전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행한 인간조건을 극복한 사람들

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인 이희아 소녀는 날 때부터 네 손가락 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다리도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어서 무릎 밑은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급 척수장애자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운명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카톨릭 신자이자 간호사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병신이라고 놀려도 전혀 굴하지 않고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열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도 잘 못 치는 피아노를 네 손가락으로 치고자 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과 같은 피아노 선생님의 도움으로 모든 한계 상황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장애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②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팔과 다리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조금도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일반 학교에 다니며 보통 아이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팔 다리도 없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축구와 야구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수영에 도전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간부로서 행사를 주도하고, 미식 축구부에 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는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승리의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운명적인 생각도 거부합니다. 그는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 인간의 여러가지 종류의 운명주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①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 ② 시험에 대한 운명주의와 실패의식 ③ 불구나 신체적 이상과 결합으로 인한 운명주의

† 나에게 있는 불행한 인간조건과 깊은 운명주의는 무엇인가?

불행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 안에는 결코 운명과 절망이 없고 밝은 섭리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한 인간 조건을 결코 운명적인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운명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한 조건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

① Fanny J. Crosby : 생후 8개월 만에 송곳에 눈이 찢려 실명하였다. 그녀의 인생은 한없이 운명적이고 불행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육신의 눈을 감기시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하신 큰 뜻을 깨달았다. 그녀는 9,000여 편이 넘는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② 안요한 :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저자. 젊었을 때 실명하고 아내와 재산, 직업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학교에 입학 맹인교회를 설립, 맹인선교에 힘쓰고 있다.

4.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4)? 우리가 왜 사는 동안 특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NIV)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We must do the work of him.”으로 must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픈 운명적인 생각에 빠져 무기력하게 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낮 :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거듭난 후(롬13:11~14), 부활후(살전 5:4-6), 젊은 시절

밤 :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속에 계실 때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생명이 있는 때를 의미하고 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 얼굴에 땀 흘리는 저주를 받은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전9:10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종종 걱정적으로 절규했다고 합니다. "나는 서둘러야 한다. 서두르자, 시간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선율을 그대로 지닌 채 죽는다는 일은 생각만 해도 두렵다"

5.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떤 분이십니까(5)?

☞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한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운명을 섭리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의 빛은 생명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힘 있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빛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깊은 운명주의와 열등감과 패배감 좌절로 힘을 못쓰고 어두움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늘 슬프고 한 많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 되사 모든 어두움이 일순간에 물러가고 어둡고 운명적인 생각에 밝은 생명력을 줍니다.

요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22:1-5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6:1-3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셔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6.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6,7)?

☞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 :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으로 넓이는 16-5.4미터.

옛 이름은 실로, 실로아 또는 셀라이다(사8:6, 느3:15).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못으로서 히스기야왕이 앗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에 대비하여 기혼의 샘으로부터 성내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지하도를 뚫어서 물을 끌어 왔다(왕하20:20, 대하 32:30). 그때까지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이 동남 모퉁이를 돌아서 옛 실로암 못까지 천천히 흘러 들어간다(사8:6) 실로암 못은 넓이가 16-5.4미터 못물은 아랫 쪽에 있는"옛못" 또는" 윗못"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불리는 "아랫못"으로 흘러 들어갔다(사7:3, 왕하18:17,사22:9,11). 신약 성서의 예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던 말이 있다(눅13:4).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예수님은 말씀의 진흙과 기도의 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경과 제자들의 운명적인 요소를 없애시고자 진흙과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소경의 눈을 고칠 수술기구도 기증한 눈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진흙과 침으로 소경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할 도구가 없다거나 일할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연기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나 있는 진흙과 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 우리에게 있는 진흙과 침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7. 소경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그 결과는? 이 소경으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열왕기하 5장의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문밖으로 대머리만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했다. 나아만 장군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여 화를 내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교만과 자존심을 꺾고 겸손히 순종했을 때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

소경으로부터 배울 점은

첫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는 자존심을 내세워 반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눌수 있다는 믿음. 그는 의심과 불신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8. 이상에서 진흙을 이겨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운명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우습고 엉뚱하며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 같으며 매너도 없었고 기교도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있는 진흙과 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형편이 아니라, 소경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과 진흙만 있어도 소경의 기구한 운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9. 소경이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8-10)? 이때 소경이 되었던 자는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밝혔습니까(11)?

☞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궁금해 하였다.

☞ 소경은 자신 있게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를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다. 예수님을 밝히 증언하였다.

10. 소경이 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의 압력에도 어떻게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24,25)?

24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 사람들은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 갔고 바리새인들 간에는 안식일에 소경을 고친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소경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지만 소경은 확신 있게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를 불러 물었지만 부모는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아들에게 물어보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핍박과 불신과 두려움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분명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아는 것, 바로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11,15,25절). 이때 그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며 빛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권위주의와 율법주의로 영적소경이 되었습니다.

요9: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 내게 있는 구원의 은혜, 한가지 아는 것을 생각해보자

35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그를 예수님은 동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5: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5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히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출교 : 유대 종교공동체를 문란케 하는 자에게 가하는 최고의 형벌로서 임시출교(한달 혹은 일정기간) 또는 종신출교가 있다. 출교당한 자에게는 2m이내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죽으면 그 시체에 돌질을 합니다.

☞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하며 신앙고백하며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 드렸습니다.

☞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운명적인 요소가 물러가고, 나의 어두운 내면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차게 된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며 빛의 증거자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 우리에게 있는 진흙과 침은 말씀공부, 기도생활, 사랑, 섬김, 젊음 등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면의 어두움과 인생의 운명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밝은 인생, 새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리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 4절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결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 9절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공동번역

-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 2절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 3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4절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 5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 7절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 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 8절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 9절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यो" 하고 말하였다.
- 10절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 11절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표준새번역

- 1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 2절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하고 물었다.
-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8절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하고 말하였다.

9절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뜬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하고 말하였다.

10절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11절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NIV

1절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2절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3절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s life.

4절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5절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6절 Having said this, he spit on the ground, made some mud with the saliva, and put it on the man's eyes.

7절 "Go," he told him,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is word means Sent).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eeing.

8절 His neighbors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asked, "Isn't thi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9절 Some claimed that he was. Others said, "No, he only looks like him." But he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10절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they demanded.

11절 He replied, "The man they call Jesus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then I could see."

NKJ

1절 Now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o was blind from birth.

2절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3절 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4절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5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6절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with the saliva;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7절 And He said to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which is translated, Sent). So he went and washed, and came back seeing.

8절 Therefore the neighbors and those who previously had seen that he was blind said, "Is not this he who sat and begged?"

9절 Some said, "This is he." Others [said,] "He is like him." He said, "I am [he.]"

10절 Therefore they said to him, "How were your eyes opened?"

11절 He answered and said, "A Man called Jesus made clay and anointed my eyes and said 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NRS

1절 As he walked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2절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3절 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he was born blind so that God's works might be revealed in him.

4절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day;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5절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6절 When he had said this,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mud with the saliva and spread the mud on the man's eyes,

7절 saying to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which means Sent). Then he went and washed and came back able to see.

8절 The neighbors and those who had seen him before as a beggar began to ask, "Is this not th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9절 Some were saying, "It is he." Others were saying, "No, but it is someone like him." He kept saying, "I am the man."

10절 But they kept asking him, "Then how were your eyes opened?"

11절 He answered, "The man called Jesus made mud, spread it on my eyes, and said to me, 'Go to Siloam and wash.' Then I went and washed and received my sight."

